



맛의 향연 제11회 순창장류축제가 오는 13일 개막 준비를 마치고 가을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순창장류축제 준비완료

13일부터 16일까지... 매운 떡볶이 만들기·전통놀이마당 등

맛의 향연 제11회 순창장류축제가 오는 13일 개막 준비를 마치고 가을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순창장류축제는 전통 장류와 소스를 활용한 70여가지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4일간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주말 가족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맞춤 여행 코스가 될 전망이다. 먼저 가족단위 관광객이 상시적으로 전통장류를 활용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통장류 상

설체험장'을 무대 전면에 배치했다. 상설체험장에서는 전통장류소스 만들기, 우리가족 매운 떡볶이 만들기, 캐리터 메주만들기, 전통놀이마당 등 순창 색깔이 묻어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행사 내내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기, 메주먹은 장어잡기, 임금님 수라상체험 등 13가지 체험프로그램이 한 가득이다. 또 매운소스를 입힌 떡을 먹는 국가대표 매운맛 대회와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은 대표적 참여 프로그램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2016인분 떡볶이만들기, 순창고추장비빔밥만들기, 장류주먹밥모자이크, 장류마을 쏘바야 놀자 등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 가득이다. 고추장 민속마을과 함께 축제의 주요장소가 되는 국내 최대 발효소스 토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도 이번 축제의 백미로 뽑힌다. 또 독특한 맛의 소스요리 경연대회, 중국전통소스 전시회 등이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준다. 특히 굴소스를 이용해 만든 주먹밥 150인분씩을 하루 세차례 관광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고창군, 민간예찰단 합동 안전점검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민간예찰단 합동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민간예찰단은 최근 경주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을 비롯해 태풍 '차바' 등 각종 재난재해 속에 지역 내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8일 고창 진통시장 등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고창읍 진통시장에서 이어진 합동 안전점검은 민간예찰단과 고창군, 전북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 신속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안전점검과 함께 김상호 고창군 부군수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예찰단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방법

법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비롯해 예찰단 활성화 방안 등 세부적인 활동계획 등에 대해 토의했다. 김상호 부군수는 "숨어있는 안전사고 지대를 발굴하여 우리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고창군도 예찰단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안전한 고창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민간예찰단은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 28명으로 지난해 11월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민간예찰단원들은 ▲점통시장·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교량·터널·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안전신문고 홍보 등 지역 안전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강천산 둘레길 안전점검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 팔덕파출소(소장 문경주)에서는 가을단풍철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 둘레길 설치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순창군에서 강천산과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 중인 강천산 둘레길은 11월 완공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순창경찰서 주변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팔덕파출소에서는 행객 보호안전과 주변 차량소통상 위험성 등에 대한 점검을 완공 시까지 수시로 진행 할 계획이다. 문경주 소장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사장의 안전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강천산을 찾는 행객들의 안전사고 없는 순창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 복흥면, 다문화 가족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10월 한달 간 대상가구 개별 방문

순창 복흥면이 다문화 가족의 민족도 높은 결혼생활 유지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실현 등을 위해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평소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은 황숙주 군수가 직접 계획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복흥면은 다문화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10월 한달 간 대상가구를 직접 개별 방문해 심층대면 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현재 생활상황 파악과 육구조사 등을 실시했다. 특히 기존 단순 기입식 척도형 설문 조사를 지양하고 대면접촉을 통한 개방형 상담을 진행해 다문화가족의 객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세심한 애로 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을 들였다. 또 상담이 한국어로 이루어져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담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거나, 의사와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시 해당 언어 통역과 함께 방문 하는 등 세심한 주의도 기울였다. 복흥면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이장회의를 통해 각 마을 이장들에게 해당 조사와 관련한 안내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본격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특히 기존 단순 기입식 척도형 설문 조사를 지양하고 대면접촉을 통한 개방형 상담을 진행해 다문화가족의 객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세심한 애로 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을 들였다. 또 상담이 한국어로 이루어져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담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거나, 의사와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시 해당 언어 통역과 함께 방문 하는 등 세심한 주의도 기울였다. 복흥면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이장회의를 통해 각 마을 이장들에게 해당 조사와 관련한 안내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본격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는 지난 8일 사랑의 광장(요천둔치)에서 시민과 함께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나눔과 이웃을 사랑하는 흥부 정신 계승을 위하여 추진된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자리로 '떡매치기'와 '떡 썰기', '떡 나눔'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원봉사자와 소외계층은 함께 한 데 어울려 떡 나눔 행사를 운영해 자유로이 행사를 즐기며 상호 소통하고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자원봉사자, 소외계층이 한 곳에 모여 떡 만들기 행사를 통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앞으로 남원시에 사랑과 희망의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3개 지구 상수관로 정비·소독약 자동투입기 설치 등

남원시 상수도사업소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눈에 띄는 사업은 송동원촌 등 3개 지구 상수관로 1.3km 정비와 수지 신덕 외 55개 마을에 소독약 자동투입기 설치이다.

특히, 소독약 자동투입기 설치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물탱크 내에 소독약을 정량으로 투입한다.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들의 번식을 막아 각종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분기마다 13개 항목에 대해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주민 보건위생 향상

에 힘쓰고 있다. 2016년 3/4분기 113개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수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13개 검사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정밀점검 해 원인을 해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대표 협의회 오영원 정비, 시설개선, 수원이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참여 작품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준비하고 화재예방을 소재로 하는 작품 공모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등의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교 및 가정에서 불조심을 실천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남원·순창 관내 초등학생들은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포스터(화재예방 상상화, 4절 크기)와 함께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나 가까운 119 안전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소방서에 공모된 작품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입상작은 시상과 함께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담당자 이용기 ☎620-3744)로 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참가를 희망하는 남원·순창 관내 초등학생들은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포스터(화재예방 상상화, 4절 크기)와 함께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나 가까운 119 안전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소방서에 공모된 작품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입상작은 시상과 함께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담당자 이용기 ☎620-3744)로 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애향의 밤 행사 성료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고향을 떠난 재외군민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고창군 애향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8일 오후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애향의 밤' 행사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고창출신 백재현 국회의원, 장병식·이호근 도의원, 군의원, 임정호 재경군민회장, 이진수 재전군민회장, 김기동 재광군민회장, 조병채 애향운동본부장, 진남표 고창모양상보존회장을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고향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 임정호 재경군민회장은 "우리의 고향 고창이 낯이 발전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자 자랑거리"라며 "앞으로 고창이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향우회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돌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고향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재외군민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 덕분에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고창이 가진 천혜의 자연생태환경과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화합하고 협력하면 고창군이 낯이 발전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군민과 재외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 상황을 도와주고,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담문의 **580-1011**

krcc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 신청자격 :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지원 제외 : 만 76세 이상, 상가 및 2주택 소유자)